

콘크리트 품질 및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자격신설에 대한 도입 논란

지난 1998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가칭 구조진단 기술사 제도] 도입 추진 파문에 이어 올해도 또 다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격제도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 문서번호 기정58814-144(2001. 3. 27) 국무총리 지시 제10(2001년 2월9일)호에 의하여 추진중인 "콘크리트 관련자격의 시설에 대한 검토의견 조희"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한국기술사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한국주택협회장, 대한건설사업협회장, 시설안전기술공단이사장, 대한건축학회장, 대한토목학회장, 한국콘크리트학회장,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장, 한국건전재시험연구원장 이상 15개 기관의 의견을 조희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회는 한국기술사회로부터의 의견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긴급 정책회의를 2001년 4월 6일 회장단과 정책위원회 위원장, 담당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회는 기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다.

(1) 구조물의 진단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축구조기술사 시험과목은 "건축에 관한 구조의 계획, 계산 및 감리와 기타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며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구조진단에 관련한 비파괴검사법 등의 내용이 시험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며 구조진단업무 종사기간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진단은 구조계산 및 설계를 수행할 수 있어야 구조물의 내력부족여부와 안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구조역학, 재료역학, 동력학, 구조해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합성구조, 특수구조 등의 설계와 평가·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구조기술사의 전문영역입니다.

구조기술사의 여러 직무 중 구조진단분야를 보다 중요시한다면 시험 및 실무경력 평가과정과 더불어 계속교육에서 그 비중을 높여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진단의 책임기술자는 구조기술사이어야 합니다.

구조물의 역학적인 응력의 흐름을 파악할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재료와 시공의 상식과 안전진단장비의 조작기술 등에 대한 평가로 구조진단 기술자격을 부여한다면, 의료장비 조작기능사와 매약하는 사람에게 의사자격을 부여하고 환자진료에 임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그런 비전문가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 제도에 따라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본말전도의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구조기술사의 직무중 평가와 진단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품질 및 진단업무 기술자"를 둔다면 구조계획자, 구조설계기술자, 구조분석기술자, 구조시험기술자, 구조감리기술자 등 직무별로 각각의 기술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3)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과 진단 업무를 통합한 콘크리트기사 및 산업기사의 신설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사의 신설은 향후 새로운 기술사의 도입이 예상되며, 이 제도의 도입보다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진단분야의 전문성확보와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중복되는 새로운 자격제도의 도입보다는 현행 제도상의 구조기술사를 품질관리 및 구조진단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